

昌寧曹氏莊襄公派譜卷之一上

新譜序

파보 하위이작야 동종각파사방산재대동수보사거력면
派譜는何爲而作也요同宗各派가四方散在하여天同修譜는事巨力綿

고소이연야 유아창녕조씨 세계원시조휘계통신
故로所以然也라 惟我昌寧曹氏는世系가遠矣라 始祖諱繼龍은新

라진평왕조시관지태사봉부마도위창성부원군추존음갈문왕시조비
羅眞平王朝時官至太師封駙馬都尉昌城府院君推尊飲葛文王始祖妣

성조황고덕만여주선덕여왕이후금자광록대부문하시중평장사휘
는聖祖皇姑德曼女主善德女王以後金紫光錄大夫門下侍中平章事諱

자기충정공휘 대용공정공휘 직고려비서소감공휘
는自奇忠靖公諱는大隆恭貞公諱는直高麗秘書少監公諱는思旦前後

자신라고려이조지우 열조선세지도덕문장관직현달 기제어구
自新羅高麗李朝至于에烈祖先世之道徳文章과官職顯達이己載於舊

보 경설필요성 유아장양공파 휘저증조
譜하니이제어찌更說의必要性을느끼리요 惟我莊襄公派는諱著曾祖

고려비서소감공휘사단선조 피간당정중부지란 퇴은어능성
高麗秘書少監公諱思旦先祖께서避奸黨鄭仲夫之亂하여退隱於綾城

현(현능주)대곡 시위입능선조 지우자손 세세상전
縣(現綾州)大谷하시니是爲入綾先祖이시다至于子孫이世世相傳하

호수 달일천여호 우금시대변천 동서양교통 편리고 자손
야戶數가達壹千余戶라于今時代變遷에東西洋交通이便利故로子孫

산거각처 당차금일 약불수보 후일 기무실본지탄호
이散居各處하야當此今日에若不修譜면後日에豈無失本之歎乎아

단수보취지 일 이표모선지성 일 이표돈목지의의 승고
旦修譜趣旨는一以表慕先之誠이요一以表敦睦之誼意도있지만崇高

전통 자기역사 역대선조유적본관유래 지득
한傳統과自己歷史를잊지않고歷代先祖遺蹟本貫由來를知得함으로

新譜序

昌寧曹氏莊襄公派譜卷之一

睦族之誼에益勉하고先代美風을涵養하며系統을明確히하는데도

目的이有함이라故로觀其譜則孝悌之心이由然이生하며親切之心이

自然而發矣라 在光莊襄公派親睦會議齋發로己未年에莊襄公墓

舍하고續修派譜하니此實吾綾族三派門中一大事也라特히此修譜時

和順甘道里宗親과谷城宗親을近百餘年間漏落之歎而今斯始尋合譜

之事는多幸之事라이는秉午大夫와甘道里門中良鉉宗鉉및谷城門中

秉天主煥喜斗喜徹宗親協助之功也라今歷史的인本譜編纂事に莊襄

公實錄世代既遠莫得其詳이러니及其襄平公後孫永皓宗親苦尋抄出

前後履歷就恰得載于本譜는實吾大宗派門中光榮也오永皓之功은後

世際也라編纂顧問에雲岩琿承大夫雲章東熙大夫大谷秉午大夫茅山

珣叔滄岩基沆叔계서責余監董譜役하시고都校正에雲章東熙大夫와

副校正兼繕寫監印에倉松在烈叔및各私門中收單有司가不徹晝夜勞

苦協助로編纂刊行하니感其門中之和同이라 惟我僉宗은奉斯譜코

朝夕으로啓諸兒孫하야報本之道에勿怠하시고小生의게大課業을委

任指導協助해주신賢宗諸位와刊行에勞苦가많은義龍族弟의게致賀

의 뜻을表하는바이며畧叙其來歷及事由하여備後日에參考之云爾라

庚申新春上浣 收編委員長 後孫 乙鎮 謹序

新譜序

己未合譜는何爲而設也오直收綾城三派三百餘年睦族崇祖解弛之精
神하야歸于一體一致之誠心하야承我衆烈祖垂裕後昆之大德而沒也
不忘者也라斯役也豈不重且大乎아然則收精神歸一之策은莫若睦族
敦倫而已오敦睦之道난亦莫若收三派家牒而合一譜而已니各守其乘
而不合譜則大祖大族一本之誼世去愈遠愈踈하야相視若途人하리니
子姓敦睦追遠一體之心이何自而生乎아是故로今日之收散牒은收百
子千孫分離之精神하야奉諸先祖墓宇壇享神道遺墟碑也오譜合則前
日之遠者近하야踈者親하야相待一家하리니子姓睦族報本一致之誠
이豈不從此發乎아是故로今日之合譜는合百子千孫團結之精誠하야
事衆先祖沒世不忘之德者也니此三百年中己未合譜之所由設也라爲
吾僉宗은自今以往으로深覺於此合譜之大義하야不墜敦睦報本之誠

新譜序

昌寧曹氏在襄公派譜卷之一

심이 전계전술 즉 유아 열 조묘 우단 비만 세불 추지책 기불재자호
 心而傳繼傳述則惟我烈祖墓宇壇碑萬世不墜之策이 豈不在茲乎아
 아래 애천 추번 영희 색역 불재자호 오호 호호 지약사시가절 종친상우
 我來裔千秋繁榮喜色이 亦不在茲乎아 嗚呼라 至若四時佳節宗親相遇
 지제 세사 휘일 자질 상취 지석 열사 보강 기제 즉 당유 종지 분과 지
 之際와歲祀諱日子姪相聚之席하야 閱斯譜講其系則倘有宗支分派之
 수 소기원 즉 동출 어일 조지 혈통 수역 루백세 부자 조손형제
 殊나湖之源則同出於一祖之血統하야 雖歷累百世라도父子祖孫兄弟
 숙질 지분 친연 유질 동당 동석 상대 지제 호형 호제 호호 숙호질지
 叔姪之倫이 燦然有秩하야 同堂同席相待之際에 呼兄呼弟呼叔呼姪之
 행이 유연 일어 연사 지표 차기 비합일 조지 혈통이 속지 어일 보지
 行이油然溢於言辭之表하리니 此豈非合一祖之血統而束之於一譜之
 중자 호이 오자 손시 지 즉 수유 친소 지분 이오 조하시 즉 균시오자
 中者乎아 以吾子孫視之則雖有親疎之分이나 以吾祖下視則均是吾子
 손야 유하 친소 지분 유아 침중 경수 사보 내조 내석 열고
 孫也라 有何親疎之分이 리오 惟我僉宗은 敬受斯譜하야 乃朝乃夕閱考
 지시 항이 오조 하시 지심 반성 돈목 즉애 즉지 심부 지어 양박
 之時에 恒以吾祖下視之心으로 反省敦睦則愛族之心이 不至於涼薄하
 승조 지성 부지 어해이 사재야 사단야 사비야 영세 불추
 고崇祖之誠이 不至於解弛하야 斯齋也 斯壇也 斯碑也 永世不墜하리니
 심소 망어 침중 연도 유사 봉승 공야 부유 사결 수편 장재 을
 深所望於僉宗馬하노라 都有司엔 琤承公也오 副有司兼收編掌財엔乙
 진보 야 선사 겸감 인재 열종야 삼자 지공 어사역 기불대이 호
 鎮甫也오 繕寫兼監印엔 在烈宗也니 三者之功이 於斯役에 豈不大矣乎
 교정 여참 약간 필삭 이이사 명칠 후에 지경 상언
 아校正엔 余僭畧干筆削而以僥明哲後裔之更詳馬하노라

檀紀四千三百十四年辛酉新春 後孫 東熙 謹序

癸卯舊譜序

惟我曹氏自羅麗來爲市名臣碩輔勳庸德業世趾其美而傳之久遠累經
 兵燹麗季以前先世衣冠收藏一不能保守我先祖晦谷文忠公用是痛恒
 積誠懇求連四五世繼志殫力前後尋三代瑩域即慶州草堤 太師公墓
 也松華 襄平公墓也平山水月峯 平章公墓也此皆誠透金石神明有
 所感佑而陰詔之者也是豈尋常誠力所可到哉嗚呼百支千派苟求其初
 同根也同源也一體之分也自吾祖先視之均是子孫體祖先之心而推之
 後雖疎遠猶吾一身一身之內安有彼此之殊乎往在甲戌修譜也余以年
 淺識蔑猥忝是役更放綾城派則家而孝國而忠世有偉人耀丹青式鄉閭
 甚欽誦而以其先系之有難釐正心竊慨恨如吾身之有痛焉綾之宗有堵
 馬篤於先積幾年始尋 莊襄公墓得麗牲之刻載 少監公以上左僕射
 諱仁善侍中諱大隆給事諱瑤侍中諱直四代名諱官聯歷落如指掌茲豈
 非誠透金石神明所陰詔者哉其可敬也已鞠草之原新其梓樹之封乃爲
 一門惇史將謀劄厥廣詢於京外諸宗衆論既一余何敢異今昌燁甫千里

위방요 일언이 변기성지 근영인 흠복자실전가지 효유연상감상이 천선
 委訪要一言以弁其誠之勤令人欽服茲實傳家之孝油然而相感上以闡先
 덕차유 후승영세물체오종지창대기자차시호세재계묘계춘상한종인
 德且勗後承永世勿替吾宗之昌大其自此始乎歲在癸卯季春上澣宗人
 통훈대부전행덕산군수두환근식
 通訓大夫前行德山郡守斗煥謹識

癸卯(西紀一九百三)年舊譜序 해석문

생각해보전대 우리曹氏는 신라와 고려로부터 내려오면서 이따금 名臣碩輔들의 勲庸德業이야말로 대대로 이처럼 아름다
 운말차취를 傳하여 내려온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누차 兵燹(난리를 말함)을 겪어 고려말세 以前의 선조님들의 衣冠攸藏
 (묘소를 말함)을 한군데도 잘 保守하지 못하였다. 晦谷先祖이신 文忠公께서 이를 痛恨히여겨 정성을 쌓아 찾으려하였으
 며 連四五世 宗손들이 晦谷先祖의 뜻을 이어 힘을 다하여 前後 三代의 무덤을 찾았으니 바로 慶州고을 草堤에 있는 太師公
 의 묘소와 松華고을에 있는 襄平公의 묘소와 平山고을 水月峰에 있는 平章公의 묘소다. 이 모두 金石을 刻鏤를만한 정성
 에 神明이 감동되어 가만히 가르쳐 주심이니 어찌 보통 誠力으로 가히 성공에 도달 하였을까 아! 百支千派(자손을 말
 함) 진실로 그의 처음을 찾아보면 나무 뿌리와 같고 불근원과 같아 한몸이 나누어진 것이니 우리先祖께서 보실때는 똑같은
 子孫일 것인즉 우리 모두는 先祖任의 마음을 體得하여 추진해나간다면 뒷날 비록 疎遠한 대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몸과
 같을 것이니 한몸공이의 안에 어찌 彼此간의 다름이 있을수가 지난 甲戌修譜할때 내나이도 적고 지식도 없이 이譜役을 猥
 忝(겸손한 뜻을 말함)할때 다시 畿城派의 내력을 상고해 본즉 가정에 호도하고 國家에 忠誠한 偉人들이 었지 代代로 丹
 靑의 빛을 냈으며 郊閭의 본보기가 되어 심히 欽誦하였으나 그의 先系에 釐正하기 어려움이 있어 마음이 慨恨하여 내몸에
 아픔이 있는것 같더니 綾州의 宗親인 精이 篤실한 爲先의 정신을 살은지 몇년만에 비로소 莊襄公의 墓所를 찾았으며 麗牲
 (임금이 사당문에 들어갈때 牲을 대는 비석) 새겨진 기록을 말코하였으니 少監公위로 禮술은 左僕射며 諱(이름)는 仁善과
 벼슬은 待中이며 諱는 大隆과 벼슬은 給事며 諱는 璽과 벼슬은 侍中이며 諱는 直이신 四代의 이름과 벼슬과 내력의 분명
 함은 指掌과 같으니 이어찌 金石을 刻鏤를수 있는 정성과 神明께서 가만히 가르쳐 주심이 아니겠는가 그는 가히 公望할 일
 이다. 지난날 鞠草만이 우거진 언덕이 이처럼 梓나무가 서있는 무덤으로 새로워졌으며 요즘은 한문종의 博史(가승을 말함)
 를 만들고자 하여 劄冊(인쇄를 말함)할것을 모사할때 京外에 사는 여러 宗親들에게 의견을 묻자 衆論이 일치되었으니 내
 어찌 감히 다른 의견을 말하리오 오늘날 昌燁등이千里길에 찾아와 弁文(머리말)을 要請하니 그들의 부지런한 정성은 나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였다. 이날로부터 진실로 傳家의 孝心에 油然而起로가 감동되어 위로는 先祖의 德望을 밝히고 또는 後
 孫들의 繼승을 도와준다면 길이길이 막히지 않을 것이니 우리 宗族들의 昌大하는 길이 이번 譜事로부터 비롯된다 하겠다.

癸卯年 끝봄 上澣에 宗人 通訓大夫 前行 德山郡守 斗煥은 삼가 기록하나다.

木有本而支分水有源而流分以至千支萬流追其本而溯其源則同一而

己人之於氏族何以異哉蘇明允之言曰塗人也竊以是惑焉遇塗之人而

問之則姓所同也祖是同也於是戚然而感欣然而悅自其禰及其祖以溯

其所自出則本於一而後屬疎遠視若塗人自其祖先視之則均是子孫也

人無不愛其父母以其愛父母之心愛其父母之所以愛之則雖易十世有

何遠哉曹氏始籍于夏山鼻祖太師公生於新羅 眞平王時而有文在脅

曰曹因賜之姓封昌城君官太師繼茲後承蕃衍鉅卿勲門闡奕奕至

麗朝莊襄公大昌官僉議政丞封聯珠府院君聯珠綾城舊號因其所居之

鄉錫封焉是爲綾城一派也入我 朝文學忠孝節義任官蔚然相望此實

先代深以厚德種美毓祉以啓子孫無窮之休於乎盛哉今此曹氏修譜之

曰莊襄公後孫昌燁屬其卷弁之文余於曹氏爲彌甥誼不可辭略綴世德

而勉之云爾歲癸卯孟春上澣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光山金天洙謹序

나무란 根本이 있어야 가지가 나누어진 것이며 물이란 근원이 있어야 흐르는 물줄기가 나누어져 千支萬流가 되는 것이
지만 그의 근본을 찾고 그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同一한 것이니 人間의 氏族도 나무가 물줄기에 무엇이나 다를바 없으
라 蘇明允(중국 송나라 문장)이 종족을 塗人이라 표현하였으니 가만히 生覺해보면 이 말쑤에 의혹이 간다. 길가는 사람을
만나 문답하다가 姓氏도 같고 先祖까지도 같으면 이때부터 戚然한 마음이 느껴지며 欣然스럽게 기뻐하는 것이니 그사람

舊譜序

들의 아버지와의 할아버지의 출생하신 곳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사람인 것이니 後日에 疎遠하다 하여 宗族을 塗人(길가는 사람)처럼 본다는 말인가 先祖께서 뜻같은 子孫으로 보실 것이다. 사람마다 自己의 父母를 사랑할 것이니 그의 父母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父母께서 사랑하시던 조부모를 사랑한다면 비록 十代가 바뀔지라도 어찌 疎遠한 生覺이 있으랴 曹氏는 처음에는 夏山으로 本籍을 하였으며 鼻祖(시조를 말할) 太師公께서는 新羅 眞平王 때 出生하여 저드랑이에 曹字가 써있었다 하여 曹氏로 姓을 주어 昌城君에 封하였고 太師벼슬을 내렸다. 이분의 뒤를 이은 後孫들이 蕃衍하여 높은 벼슬과 위대한 업적은 門閥을 奕奕하게 하였으니 高麗 때 莊襄公께서 비로소 文호를 大昌하였는데 벼슬은 僉議政丞이며 聯珠府院君으로 封한 것은 綾城을 옛날에는 聯珠라 불렀기에 그분의 居住하신 고을 이름이라 封한 것이니 이분의 子孫들이 綾城에서 一派를 이루고 있다. 我朝(李氏朝鮮을 말할)가 되어서는 文學과 忠孝와 節美와 任官이 蔚然相望(많다는 뜻)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先祖任들을 께서 깊은 仁과 두터운 德望으로 아름다운 福을 삼고 길러 子孫들의 끝없는 아름다운 운수를 열어 주었으니 아! 盛하도다 요즈음 이 曹氏들의 譜牒을 편수하던날 莊襄公의 後孫이신 昌燁氏가 나에게 그의 卷弁文 지을 것을 위촉하였으며 나머지 曹氏들의 彌甥(외손을 뜻함)이 되기에 가히 사양하지 못하고 내략 先世의 내력을 엮어 그들의 文事에 근면할 것을 부탁한다.

癸卯年 趙君 上澣에 通政大夫 成均館 大司成 金天洙 삼가 序文하노라.

譜者有姓之大一統也其所以明世系收宗族正倫理篤思義有補風化爲
 何如也哉我東氏族莫不崇行尊祖重宗講親睦爲本蔚然成風至于今
 不衰吾曹氏起於新羅盛於勝朝人本朝繼有文學行義達爵偉勳間世
 並作源源不匱無或有遜於東方淵源之家簪纓之族矣但自少監公入
 綾之後先壠失守世代未明竟致丁亥之未入原譜凡厥雲仍孰不爲沒世
 未盡之恨哉族孫墉平日精力勤於繼述先業丁酉秋竟尋莊襄公墓得
 誌刻之石字畫無恙而世代之未明者乃始瞭然矣方欲續修大譜而事巨
 任重未可食卒議爲遂與諸族之在綾城者修爲一家之譜以爲後日今修

대보지개연회우상감상기일조소동출지불이근일과분이원동즉수적
 大譜之階焉噫又嘗感想其一祖所同出枝分而根一派分而源同則遂激
 出和睦之心也然則譜牒之作所不可無者而同族之義顧不重且大歟夫
 處同族之間急難相救匱乏相恤喪葬相問吉慶相賀無相爭鬪無相嫉惡
 其鬻過者則以掩覆爲心其善美者則以獎揚爲懋互相扶持而保吾族誼
 也惟我曹氏子孫勉之哉今茲之役錫俊秉琦與之周檢錫孝昌燁錫柱輪
 掌校讎至於監董登梓之事百淳昌雲方煥碩淵甫也歲癸卯肇夏下院
 後孫喜霖謹序

後孫喜霖謹序

보첩이란 한 姓氏의 大統을 기록한 것이니 그 집안의 世系를 밝히고 宗族을 모으며 倫理를 바르게 하고 恩義를 독실하게 하
 여 世上사람들의 風化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보첩을 편수하는 것이 어떠한가 우리 동방에 氏族들마다 祖上을 높이
 고 宗族을 중히 여기며 親睦을 講修한 것으로 根本을 삼고 崇行한 것이 蔚然히 바람을 이루어 오늘날까지도 없어지지 아니하
 였다. 우리 曹氏는 新羅를 비롯하여 勝朝(고려를 말함) 때는 正성기였으며 本朝(이조를 말함)에서도 文學行義와 達爵偉勳이 간
 간히 並作하여 끊임없이 다하지 아니하여 東方에 淵源있는 大家집 簪纓(벼슬을 말함)의 氏族들에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으
 되 단지 少監公께서 綾州에 들어오신후 先壠(선조무덤을 말함)을 잃어버려 代數가 分明치 못하여 丁亥年에 편찬된 原譜에 들
 지 못하게 되었으니 雲仍(자손을 말함)으로서는 누구나 죽은 날까지라도 잊을수 없는 원한이 맺힌 것이다. 다행이도 族孫되는
 堉이 塋소에 先祖의 업적을 繼述하는데 正력을 쏟아 丁酉年 가을에 莊襄公의 墓所와 記錄이 새겨진 돌을 찾게 되었다. 字畫이
 조금도 손상한 부분이 없어 分明치 못한 代數가 비로소 환하게 밝혀졌다. 이제 大同譜를 편찬하였으면 하나 사업이 巨重하여
 可히 잡자기 會議를 가질수 없기에 綾城에 살고있는 諸族들만이 한집안의 보첩을 편찬하여 뒷날 大同譜에 合修하게 하였다.
 애용하다 일찌기 많은 子孫들이 先祖한분에게 태어난 것과 나무가지가 나누어졌으나 뿌리는 하나라는 것과 물줄기가 나누
 어 흐르나 그의 근원은 같다는 것을 감상해 보니 이제야 和睦하고자한 마음이 치밀어 오른다. 그렇다면 譜牒편찬사업이 가히
 없어서는 아니 될것인즉 同族이라는 정의가 重大하지 아니할까 많은 同族들사이에 急難이 있으면 서로 구원할것이요 匱乏
 (가난을 말함)하던 서로 구원할 것이며 初喪상사에 서로 조문할 것이요 慶事에는 서로 祝賀할 것이며 서로가 다투지 말것

이요 서로가 질투하지 말것이며 宗親間에 過實이 있으면 덮을줄아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요 착하고 아름다운일이 있으면
 권장하고 알리는데 힘써 相互間에 도와 우리 族誼를 保尊해야 할것이니 오직 우리 曹氏子孫들은 힘써야 할 것이다. 오늘날
 譜牒을 편찬하는 일에 錫俊 乘琦가 같이 주선하였고 錫孝이 昌燁이 錫柱 등이 돌아가면서 校正을 맡았으며 登粹(인쇄를 뜻
 함)에는 昌淳 昌雲 方煥 碩淵 등이 監董(감독을 뜻함)하였다. 癸卯年 초여름 下院에 後孫 喜霖은 삼가 序文을 씀니다.

晦者顯之藏屈者伸之根一晦一顯一屈一坤此物理之所不可無人事之

所不敢免也惟我曹氏肇自新羅太師公子孫蕃衍文學仕宦忠義孝烈泰

錯相望熒然動人凡在士大夫之列曾不多讓焉粵自少監公南下以後

不惟年代久遠而世難時恟種種相尋少監公以上三世諱啣逸而無傳

昔在丁亥譜不入原錄者非此之由歟歲丁酉後孫埵始尋我莊襄公墓

而修其封築也有一片誌石自瑩中出而三世諱爵昭昭可徵於是聞于官

司告乎宗族使之明知於人嗚呼晦而不顯屈而不伸者爲數百季之久而

至於今日乃始有等待符會者若是其神耶即行修譜正其系次者未始非

人心之所安事理之至當而族大事鉅有非一二人之心一二日之力所可

了了也因循蹉過齋咨浩歎者久矣竊惟時愈久則心愈緩心愈緩則事不

就於是僭不自量稽校訂勘編成一帙三卷以爲綾城一家之譜其規模局

格似若狹小而由親而疎由近而遠則今日之役豈小事而可略哉經紀有

緒大事利就實賴諸宗誠力之勤勞而亦不無蒙榮之本歟至於攷校訂釐
 之功錫俊秉琦錫孝昌燁錫柱方煥相與周檢而毀繡傳布者昌雲百淳碩
 淵甫即其人也噫譜既成盥手奉玩對越晨夕上自鼻祖下及耳孫井井然
 若貫珠聯王綿綿然如碁布星列自不覺心之油然而於是乎書歲癸卯維
 夏下澣後孫必承謹跋

하하한 후손 필승근발
 하하한 후손 필승근발
 夏下澣後孫必承謹跋
 若貫珠聯王綿綿然如碁布星列自不覺心之油然而於是乎書歲癸卯維
 淵甫即其人也噫譜既成盥手奉玩對越晨夕上自鼻祖下及耳孫井井然
 之功錫俊秉琦錫孝昌燁錫柱方煥相與周檢而毀繡傳布者昌雲百淳碩
 緒大事利就實賴諸宗誠力之勤勞而亦不無蒙榮之本歟至於攷校訂釐
 之公績
 宗誠力之勤勞而亦不無蒙榮之本歟至於攷校訂釐
 之勤勞而亦不無蒙榮之本歟至於攷校訂釐
 之亦不無蒙榮之本歟至於攷校訂釐
 之不無蒙榮之本歟至於攷校訂釐
 之蒙榮之本歟至於攷校訂釐
 之本歟至於攷校訂釐
 歟至於攷校訂釐
 至於攷校訂釐
 攷校訂釐
 校訂釐
 訂釐
 釐

跋文

遺事

로는 祖鼻로부터 耳孫(현손의 증손 또는 현손의 아들을 말함)에 이르기까지 대수가 정연하여 구슬을 꿰듯과도 같고 綿綿
 (공명이 아니므로) 하여 바둑과 별은 별려놓은 것같이 나 자신 油然한 마음이 부풀어 오름을 깨닫지 못하고 이처럼 序文을 써
 보았다.

癸卯年 초여름 下泮에 後孫 必承은 삼가 跋文을 지었음

始祖曹繼龍

一世

新羅 眞平王 女婿封昌城君官
至太師

墓慶州府北四十里草堤洞卒坐上

下墳

英祖戊辰後孫叅判命教始對守護判

書豐山洪良浩撰後孫府使鳳振書

後孫副應教錫正篆

譯 新羅眞平王의 駙馬인 太師 飲葛

文王封昌城府院君妣는 聖祖皇姑

善德女王○墓는 慶北月城郡安康

邑老安里草堤卒坐上下墳英祖戊

辰後孫叅判命教가 始尋守護計였

으며 判書豐山洪良浩가 撰計고 後

孫府使鳳振이 書計고 後孫副應教

錫正篆計다

敦

欽

見2

子

謙

六世

子 應神

二世

太傅

子 壽元

三世

后 元

角子

子 壽亨

東閣舍人

子 壽貞

進士

四世

子 敦

福州密金都團
鍊使

子 景文

女 張欣

蓮花村

五世

子 欽

見2

七世

子 瑞

八世

子 延佑

九世

子 漢知

十世

子 之賢

見4

跋

豫歎吾宗合譜之不早也예 탄 오 종 합 보 지 부 조 야노라何也하 야오斯役也사 역 야 일 거一舉에吾綾城三派宗族敦

睦之心이油然感發하야崇祖之誠이日益團合而入鄉先祖三仁堂遺墟

碑以之而豎焉하고三代壇享이以之而設焉하고莊襄公墓宇神道碑以

之而奠焉卓焉하니舉一而三大先業이咸與告功者난實賴此合譜之力

也니向所委不旱之歎者指此而發也라嗚呼라譜莫不重而孰若斯譜也

오集三百餘年睦族分離之心하고贖五百餘年報本怠慢之罪하며雖有

癸卯之譜난多有漏落之歎而今斯譜則先世遺蹟文獻이周備하고前者

漏單이完納하니信無愧乎祖先矣로다吾綾族三派三百餘年中前無初

大完譜者也라爲我僉宗은豈不敬以奉之敬以藏之哉리오嗚呼라在昔

盛時하야文武簪纓이七代蟬聯하니何其世祿之綽綽歟더는若蓬觀亭

之恩賜几杖과月軒公之賜不祧하얀何其天恩之赫赫歟아後裔席文祖

武考之蔭德하야高枕驕奢라가一朝에罹不虞之禍하야東馳西奔하니
糊口不暇은何念及祖리오自此로零替不振이三百餘年矣라其何望先

跋文

昌寧曹氏莊襄公墓普卷之三

跋文

昌寧縣日東襄公泐語卷之五

瑩영지之불失실傳전이리요莊襄公장양공以上이상三代삼대失실傳전은勿물論론이고又何우하望망先선系계之지不불

失실傳전이리요恭貞公공정공諱直휘직以上이상三代삼대亦是역시失실傳전이러니往年왕년丁酉정유十一月십일二월

十二십이日일에後孫후손墳묘이始시尋심莊襄公장양공失실藏장하야發誌발지石석然後연후已이絕절之지世세系계昭穆소목

이復부續속하야厥後귈후七年칠년에修譜수보而미未수遂완完벽矣이由유是시로惟我유가雲巖운암琿承公봉승공

이深恨심한諸烈祖제열조之墓묘宇우壇碑단비之지不備불비하고又閔癸卯우민계묘譜보之疎畧지소략漏失루실하야積적

年勞년로心焦심초思사라가往歲왕새戊午무오春춘三月삼월에謀諸雲章모제운장東熙大夫동희대부及茅山금모산响宗親향종친

하야先立선입案안然後연후에大開門會대개문회하야合僉宗決議합침종결而一邊이是推進墓宇추진묘우壇碑단비

之役지역하고一邊일변은推進譜事추진보사하야距四載거사재而告厥成功고귈성공하니雖云諸族수운계족一心일심

同力동력所致소치나亦不由역불유於雲巖物心어운암물심兩至양지之功지乎호아譜事보사에는校正교정을擔當담당하

신雲章운장東熙大夫동희대부와特특히收編수편委員長위원장及掌財급재의重責중책인德菴덕암乙鎮堂을진당侄질의

晝夜주야物心물심之지大功대공乎호아惟我僉宗유아침종은顧고是시三百年間삼백년간零替영채先業선업을今繫금계于苞우포

桑상하야朝夕조석에奉斯譜봉사보諄諄순순啓諸兒孫개제아손하야於報本어보본之道지에勿怠물대하고於睦어목

族之誼족지에益勉익면하야使此墓宇사차묘우壇碑단비로永寧영녕繫于苞桑계우포상而不垢이불구不泐불록則千萬적천만

幸甚행심

歲在辛酉仲春上院（西紀一九八一年）三月 日

後孫 在 烈 謹 跋

發行所

光州市東區錦南路三街